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사학연금, 사회적 배려자  
위한 행복나눔대여 시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교직원  
의 출산장려 지원과 사회적 배려  
자의 가계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인 '행복나눔대여'  
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행복나눔대여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신혼인 교직원 자녀를 출  
산했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를 둔  
교직원,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 가  
족을 두고 있는 교직원 등을 대상  
으로 한다.

행복나눔대여는 기존 생활자금대  
여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본인의 예상퇴직급여 1/2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대여받을 수 있  
다.

이중흥 사학연금 이사장은 "행복  
나눔대여 시행을 통해 사립학교 교  
직원들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사회적  
가치실현에 적극 기여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쉬는 날 검진받는 소방관들...10월부터 공가 쓴다

소방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소방공무  
원들도 공적 휴가를 내고 건강진단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소방관 공가(公假) 특  
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소방관들은 '소방공무원 보건안  
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소방진  
문치료센터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  
른 건강진단 실시 의료기관에서 특  
수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소방 직  
무 특성상 유해인자 노출이 잦아서  
다. 참혹한 참사를 목격하고 정신

적·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경우도 흔하다.

2004년 노동부가 소방관이 산업  
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  
린 후 8년이 지난 2012년에서야 법  
이 제정돼 특수검진을 받게 됐다.

특히 구조·구급대원은 '119구  
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간 2회 이상 정기검진을 받  
도록 돼 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그간 법적  
의무인 검진을 받으려고 유급휴가  
인 연가(年假)를 써 왔다.

인원이 적은 소방관서의 경우  
연가 사용조차 여의치 않아 야간  
근무 후 쉬는 날(비번)을 활용해  
검진을 받아왔다.

소방관의 검진은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법·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결핵검진과 결  
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만 공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  
진 시 공가를 사용하는 일반직 공  
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  
다.

공가는 예비군훈련이나 검진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직급에 따라 5  
만~10만원 가량의 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수많은 소방  
관들이 휴무일 활용과 연가 사용  
등의 방법으로 검진 의무를 다하고  
있다. 대원이 적고 업무하중이 큰  
서(署)일수록 검진 자체가 부담  
으로 받아들여지는 실정"이라며 "개  
정안이 시행되면 건강한 소방력 유

지를 통한 대국민 소방서비스를 더  
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소방청은 8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  
무회의를 거쳐 10월중 공포·시행  
할 계획이다.

아동·장애인, 병·의원 안들러도 의료비 혜택 적용

다음달부터 저소득 15세 이하 아  
동과 장애인이 의료급여 지원을 받  
으려면 동네병원이나 병원을 거쳐  
야만 했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처럼 의  
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다  
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30일 밝혔  
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질병,  
부상, 출산 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다. 일을 할  
수 없는 가구는 1종,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2종으로 분

복지부, 오늘부터 의료급여 이용절차 개선

"최소 20만명 의료급여 이용 개선 될 것"

류된다.

우선 의원(1차 의료기관)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바로 병원(2차 의료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  
을 종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한다. 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  
일로 한정하지 않고 평일에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평일에는 집 근처에 병원이  
있어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동네의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해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의뢰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은 지난해  
기준 4만8000명(8세 미만)에서 14만  
4000명(15세 이하)으로 9만6000명 늘  
어진다. 지난해 의료급여로 지원받은  
15세 이하 아동 진료건수는 425만건  
이었으며 1409억원 규모였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문턱도 한층

낮아졌다.  
그동안 등록 장애인이 상급종합  
병원(3차 의료기관)에서 구강진료를  
받으려면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장애인  
구강진료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  
차 의료기관에만 있는 부산과 인천  
지역 장애인 수급자 5만6000명이 2  
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료비 혜택을 받는다.

또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등급이  
장애정도(중증·경증)로 변경

되면서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  
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처  
방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  
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  
정했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  
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명의 의료급여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이  
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  
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  
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쪽방촌 안전사고 예방캠페인  
페인'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로구 둔의동 쪽방촌에서 중로구청 사회복지과 등 관계자들이  
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 더위에 취약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쪽방촌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장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예탁결제원 나눔재단

한국예탁결제원 나눔재단은 장애  
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함께  
'2019년 장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지원사업(꿈이룸가게)'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장애 소상공인 사  
업장의 영업환경을 개선해 장애  
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을 고  
취하고 안정적 매출증진에 기여  
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49개의 꿈이룸  
가게가 개소했고 누적 사업비 약  
8억5000만원이 소요됐다.

올해는 지원센터와 협업체  
음으로 지원센터의 '장애인 창업  
점포 지원 사업' 선정자를 대상  
으로 7월 1일부터 지원자를 모집  
하며 선정자에 대해서는 장애 소  
상공인 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  
및 환경 개·보수 전문적인 경영  
진단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  
다.

이병래 나눔재단 이사장은 "우  
리 경제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주요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인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  
고 말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